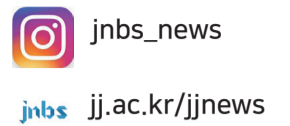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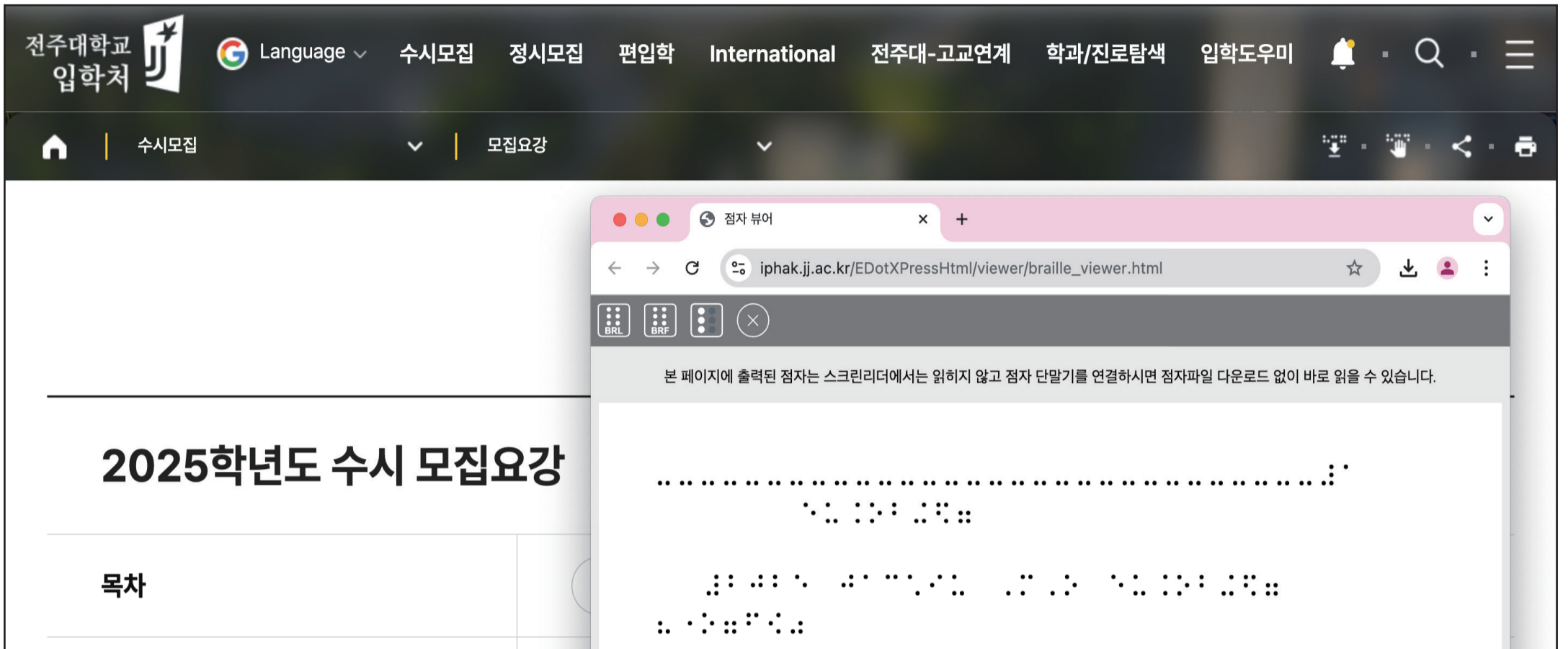
전주대신문



제941호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The Place for Superstars)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입학처 홈페이지 전자 점자 서비스 구축, 평등이라는 과제

전주대 입학처, 대학 최초로 전자 점자 서비스 도입

전주대가 시각장애인의 입학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최초로 '전자 점자 서비스'를 도입했다. '전자 점자 서비스'는 홈페이지 내용을 전자 점자로 변환해 조회·다운로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장애 학생도 입시 전형 및 정보를 비장애 학생과 똑같이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적용 방식 또한 간단하다. 따로 카테고리나 전용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 기존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정보를 전자 점자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근호 입학처장은 "이번 전자 점자 솔루션 도입은 모든 학생이 공정하게 입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웹 접근성 인증 등을 통해 장애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이 입학 전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평등한 학교를 위한 노력, 장애학생지원센터

한편, 우리 대학은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 학생들의 학습자 만족도 극대화, 전략적 학습 환경 구현 및 실천 기회 제공을 위하여 2003년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장애 학생의 교육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는 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자료 개발, 장애 학생의 학업·생활 및 진로지도, 장애 학생

관련 각종 교수·학습 장비의 관리, 장애 학생 지원제도의 안내 및 홍보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전 수강 신청 지원 제도', '도우미 지원', '장애 학생 장학제도', '교수학습 조정 안내문', '교수학습 기자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 수강 신청 지원제도'는 수강 신청 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돕기 위하여 사전에 수강 신청을 함으로써 이동 편의와 교육의 선택권을 주는 제도이다. 일반 수강 신청 일주일 전 미리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직접 수강 신청이 어렵다면 사전 수강 신청 전 담당자에게 장애 학생 우선 수강 신청서를 제출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도우미 지원' 서비스는 대학 내 이동 및 일상생활에 대한 편의와 강의, 보고서, 시험 등 대필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을 도우미로 매칭해 주는 서비스이고, '장애 학생 장학제도'는 장애등급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장애 특성으로 인한 교수·학습상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이 수강하는 교과목 담당 교수님에게 이를 사전에 알리는 '교수학습 조정 안내문' 서비스는 장애에 대한 교수의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애 학생의 요구사항을 미리 전달하는 제도이다. '교수학습 기자재 지원' 서비스는 장애 학생의 학습 편의를 도모하고자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를 지원한다. 휠체어뿐 아니라 노트북,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도 구비하고 있어 장애

학생지원센터 내에서의 사용뿐 아니라 학기 단위로 무상 대여도 가능하다. 센터 내 지원 외에도 교내 기관과의 연계에도 힘쓰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교내 도서관과 연계해 도서 대출 및 반납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일이나 전화로 원하는 도서를 신청하면 사서가 도서를 대출해 학생에게 전달해 주며, 반납 또한 방문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동이 불편한 학생의 대출 및 반납 부담을 줄인다.

앞으로의 과제

이처럼 우리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학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자 점자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평등한 교육권을 위해 힘쓰고 있다.

물론, 장애 학생의 이동권 향상과 대학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최근 엘리베이터 미설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등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도 자유롭게 강의실을 이동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었으나, 움푹 파이고 갈라진 도로 미정비 등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다. 휠체어를 탄 학생이나 시각장애인도 안전하게 캠퍼스를 누비기 위해서는 도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신입생을 위해 배리어프리 캠퍼스맵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다. 이는 배리어프리 캠퍼스맵을 통해 휠체어로 다닐 수 있는 길을 안내해 교내 지리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울 수 있다.

2024학년도 2학기 미디어센터 사령

■대학신문사 임명

[편집장]

송단비(영화방송 21)

[취재부]

정 기자 | 마경진(한국어문학창작 20)

일반기자 | 김주은(한국어문학창작 23)

[편집부]

부 장 | 김예은(시각디자인 22)

정 기자 | 권주익(영화방송 21)

일반기자 | 오수현(영화방송 23)

김예진(시각디자인 23)

위 사람을 9월 4일부로 상기직에 임명함.

■교육방송국 임명

[국장/부국장]

국 장 | 서아현(사회복지 21)

부국장 | 최윤서(방사선 23)

[국원대표]

국원대표 | 김유빈(영화방송 22)

[운영부]

일반국원 | 이예진(영화방송 24)

수습국원 | 임효진(환경생명과학 20)

[기획부]

부 장 | 서아현(사회복지 21)

일반국원

| 이채원(국어교육 22)

안수림(한국어문학창작 24)

최민주(데이터공학 24)

[기술부]

일반국원 | 김가은(경영 23)

[편집부]

부 장 | 장주원(영화방송 23)

일반국원 | 박민서(작업치료 24)

김수현(행정 24)

[아나운서부]

일반국원 | 성보은(보건관리 24)

수습국원 | 양하은(건축공학 21)

위 사람을 9월 4일부로 상기직에 임명함.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 학생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매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신입생의 교수학습 및 대학 생활과 관련된 요구를 파악한다. 또한 매 학기 간담회를 실시해 장애 학생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요구사항과 관련된 지원 정책을 수립하거나 제도 개발 현황에 대한 대학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한다. 이밖에 장애 학생들의 불편 사항 및 건의 사항을 대학본부에 전달하는 식의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면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양예은 기자(kikiyye@jj.ac.kr)

25학년도 학사 단위 구조 개편에 따른 신입생 모집, 달라진 것은?

구분	단과대학	변경 전 (2024학년도)	변경 후 (2025학년도)	비고
학과신설	문화융합대학	공연방송연기학과 음악학과	공연예술학과	통합 및 신설
	본부직속	-	반려동물산업학과	신설
	수퍼스타칼리지	-	자유전공학부	신설
단과대학 선발방법 변경	인문콘텐츠대학	학과별 선발	단과대학별 통합선발	통합선발
	경영대학			
명칭변경	인문콘텐츠대학	한국어문학창작학부	한국어문학과	변경
	공과대학	기계자동차융합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과	변경

▲ 전주대학교 입학처에 게시된 학사 단위 구조 개편

| 김주은 기자 (202315018@jj.ac.kr)

우리 대학은 학사 단위 구조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입학처에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최종안과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이번 학사 단위 구조 개편에 따른 학과 및 단과대학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어 총 176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해당 학부의 신입생은 1학기동안 전공탐색기간을 거친 후, 그 다음 학기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인문콘텐츠대학과 경영대학은 학과별 선발에서 단과대학별 통합선발로 방식을 변경하여 각각 150명, 282명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 역시 자유전공학부와 유사하게 해당 단과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은 1학기에는 단과대학 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전공 탐색 후 2학기부터 소속 학과를 결정한다.

이는 학생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새롭게 도입된 방식이다.

또한 산업수요변화에 따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려동물산업학과를 신설했으며, 문화융합대학의 공연방송연기학과와 음악학과는 공연예술학과로 통합 및 신설됐다. 해당 학과에서는 각 분야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추가로 한국어문학창작학부와 기계자동차융합공학부가 각각 한국어문학과와 기계자동차공학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편, 이번 구조 개편이 반영된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은 다가오는 9월 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전주대 2학기 학사 일정: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지난 9월 2일부터 2024학년도 2학기가 시작했다. 전주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한 학사일정 중 재학생이 꼭 알아야 할 하반기 학사일정을 정리했다.

수강 신청 정정과 학과 학년 제한 해제는 8월 30일 11시부터 9월 7일 18시까지 같은 기간 진행된다. 학점교류 원격강의(RUCK)가 포함되고 폐강 과목이 확정되기 때문에 정정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외국어, 인성, 의사소통, 소프트웨어, 채플, 기독교 과목의 학과 학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3학년 이상의 학생도 1~2학년 기간 중 미처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들을 수 있다. 또한, 교직과목 및 일부 학과의 기초, 전공필수, 전공 선택 과목들도 제한이 풀린다. 하지만 일부 교양 및 학과 지정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학과 학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수강 최소 기간은 정정 기간 다음 주인 9일부터 11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수강 취소만 가능하다.

휴학 계획이 있다면 휴학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4차 휴학 신청 기간은 9월 19일부터 25일까지이며, 5차 휴학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6일까지다. 마지막 6차 휴학 신청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로 등록금 납부자만 휴학 신청이 가능하다. 군휴학의 경우 입대 일주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등록 후 휴학하는 방법과 일반 휴

학 후, 군 휴학으로 변경해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한편, 병역의무 이행 증빙서류는 이미 입대를 한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복학 신청은 10월 5일까지다. 하지만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늦어도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인 9월 7일까지 복학을 마쳐야 한다. 일반 휴학의 경우 인스타에서 복학 신청을 하면, 즉시 복학 처리된다. 다만, 군휴학자는 전역증 또는 전역 확인 증명서를 인스타에 첨부해야 한다.

K-MOOC 및 특별학점 신청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다. 동계 계절수업을 들을 계획이라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동계 계절수업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전과 신청 기간은 12월 2일부터 26일까지이며 다음 학기 전과를 원하는 경우 신청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대체 보강 및 기말고사 기간은 12월 9일부터 2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 오유진 기자 (yujin03120@jj.ac.kr)

생활체육학과, 지역 어르신 대상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학과(학과장 진연경)가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노인 체력증진 아카데미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도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체력100 체력검증을 통해 참가 어르신 30명의 연령과 체력,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6가지의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프로그램의 강사들은 다양한 소도구를 활용한 스트레칭 및 기초 근력운동, 치매예방 운동을 토대로 본 운동 프로그램을 지도하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돕고 있다. 더불어 참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하여 향후 프로그램을 보강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됐고 하반기 프로그램은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생활체육학과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303
 미디어센터 운영실 063) 220-2441
 대학신문사 편집실 063) 220-2442

발행인 | 박진배
 주 간 | 최소담
 편집장 | 송단비

편집: 대학신문사 편집부
 인터넷신문: jj.ac.kr/jjnews
 e-ISSN 3022-8212



“ 학생성공과 지역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전주대학교 ”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권수태 교수 인터뷰



우리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에서 2년 연속 S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본지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학생성공’이라는 키워드를 우리 대학이 어떻게 풀어내어 지금과 같은 성과를 이뤄냈는지, 그 중심에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인공지능학과 권수태 교수를 인터뷰했다.

Q. 자기소개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인공지능학과 권수태 교수입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기본역량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창의 인재양성 체제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시작되었고,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1주기(2019-2021)를 거쳐 2주기(2022-2024)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대학 교육 질적 혁신으로 학생 개개인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교육·산학협력·평생교육과 지원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에서 2년 연속 S등급을 받는 등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주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전주대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1유형에서 1주기(2019-2021) 3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에 이어 2주기(2022-2024) 2년 연속 S등급 획득, 그리고 3유형(지방대학활성화) 사업도 2023년 최고등급에 이어 2024년 S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주대학교가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교육부의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여 전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표를 “학생성공과 지역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설정하고,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3대 전략 중 교육 및 지역기반 산학협력에 중점을 두어 체계적인 혁신전략을 수립한 후, 교육혁신본부를 선임부서로 대학 내 관련 부서가 모두 협력하여 이를 충실하게 수행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Q. 이번 평가에서 S등급을 받기 위해 특히 중점을 둔 전략이나 프로젝트가 있었나요?

A. 전주대학교는 S등급을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학생성공에 중점을 두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주대학교의 학생성공은 전주대학교 중장기 발전전략, 비전과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연구문헌이나 미국대학사례에서 인용된 학생성공지표와 전주대학교 학생 생애주기 프로세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대학교 구성원(교직원과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전인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이 적성을 발견하고, 역량을 함양하여 목표를 달성하며, 나아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누리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으로 학생성공을 정의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하여 빅데이터 기반 학생성공 지원서비스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담 Task Force Team(TFT)을 구성하여 대학 차원에서 종합적인 학생성공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급변하는 지역산업과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충족하기 위해 단과대학 및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무전공 통합모집 및 단과대학 통합모집 등 모집단위를 광역화하고, 입학 이후 전공탐색을 거쳐 실질적인 전공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융합전공, 마이크로전공, 자기설계전공, 전과 제도, 학습경험 인정제 등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연한 학사 운영을 뒷받침하는 ONE-STOP 학생성공 지도체계 구축 등 학내 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Q. 학생성공 지원체계 구축이 S등급 평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최근 학생성공이라는 용어를 대부분의 국내 대학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전주대학교는 타 대학과 달리 전주대학교만의 학생성공 정의에 근거하여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성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교내외 환경과 활동에 대한 학생성공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성공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2023년 2월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에서 우수사례(JJ-학생성공 플랫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를 확장하고 발전시켜 대학입학, 재학 초기, 재학중 및 졸업으로

이어지는 학생 생애주기와 데이터의 수집, 저장, 통합 활용으로 이어지는 교육 데이터 가치사슬을 통합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의 균형 잡힌 성장 및 성공 경험을 지원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 및 교육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학생성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AI Coaching 기반 학생성공 생태계 구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표인 “학생성공과 지역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대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학생성공이 학생자신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근간이 될 것이기에 관련 프로그램들의 홍보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Q. 향후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추가적으로 도입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혹은 전략이 있나요?

A. 전주대학교는 모집단위 광역화와 실질적 전공선택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학생지도 체계 구축, 적성기반 기초교육 및 전공탐색, 진로 목표기반 진로설계 및 진로지도, 핵심역량 및 적성기반의 맞춤형 기초소양교육, 학습자 배움중심 맞춤형 수업혁신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자율선택 신입생을 위해 학생성공센터 및 RC(Residential College) 센터를 신설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강화하고, 빅데이터센터와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학생성공 생태계 구축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Q. 대학혁신지원사업이 학생들이나 학교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전주대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1유형에서 2년 연속 S등급 획득 뿐만 아니라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1유형과 3유형에서 모두 S등급을 받은 전국 유일의 대학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향후 RISE 사업은 물론 글로벌대학사업과 ‘지역과 60년 세계로 100년’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학생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적성 및 역량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학구성원과 사업 목표 및 전략 공유와 학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Together 및 With You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에 적극 참여하여 학과 및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사 | 송단비 기자(danbee425@jj.ac.kr)

디자인 | 권주의 기자(ehehtk@jj.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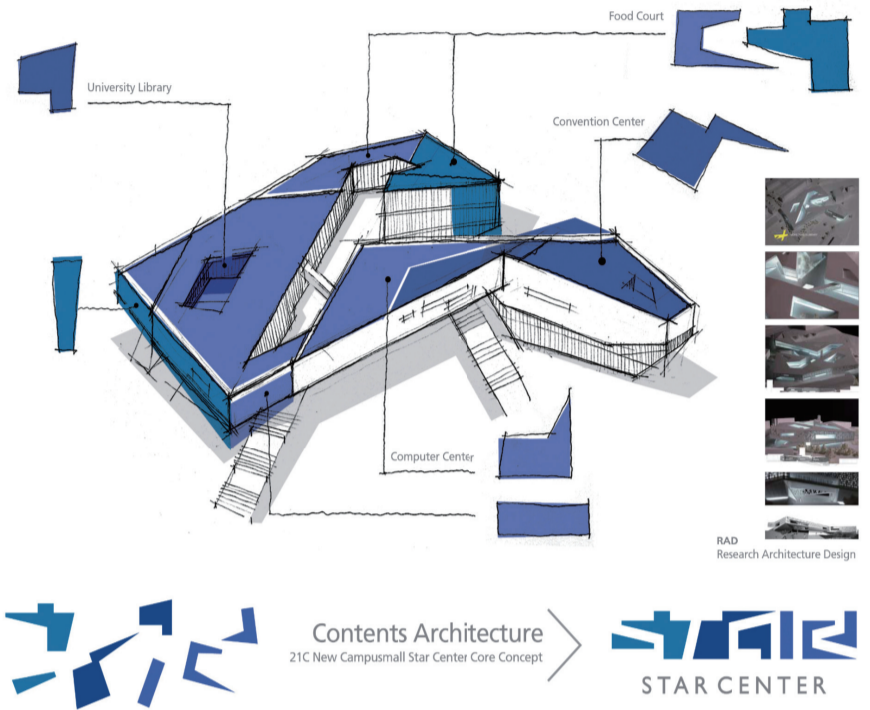
스타센터 돌아보기

‘수퍼스타(SuperStar)를 키우는 대학.’

신정문을 지난 때면 재학생들을 맞이하는 문구다. 학사 제도는 물론 기숙사와 복합건물, 통학버스 등 우리 대학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수퍼스타로서의 의식을 키워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따라, 우리가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이자 우리 대학의 랜드마크인 ‘스타센터’를 자세히 소개하려 한다.

스타센터는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캠퍼스 물로서 대학 상표 인지도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했다. 기존의 정체된 이미지를 탈피해 미래형 디지털 복합 도서관이라는 인식이 부각될 수 있도록 홍콩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애론 탄이 디자인했다. 캠퍼스와 어우러지는 현대적 조형미를 갖추면서도 옛 운동장 부지의 경사를 정교히 살려 지하 공간을 건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사비도 320억 원으로 절감했다. 현재의 스타센터는 젊은 감각의 조형미, 정교한 디자인 콘셉트, 건

물의 양감, 다양한 콘텐츠 등으로 구성해 건축적 조형성을 극대화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유비쿼터스 기능을 갖춘 도서관, 디지털 개념의 문화시설, 컨벤션 센터와 강의실 등으로 구성된 복합건물이 되었다. 인문·사회·경영·사범·공과대 등 단과대의 중앙에 건립돼 접근성을 높이는 지리적 이점도 갖췄다. 특히 스타센터 도서관은 2012년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제44회 한국도서관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도서관 중앙의 학교 홍보 동영상, 발전 기금패, 모바일웹을 제공하는 대형 안내 시스템과 e-Book을 읽을 수 있는 전자 기기, 휴식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어 재학생뿐만 아니라 전북 도민 모두의 도서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유 열람실과 PC 이용은 좌석발급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외부 이용자들로부터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점 등이 종합적인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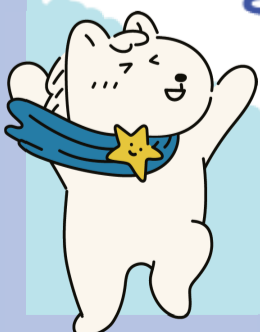


기사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디자인 | 오수현 기자(dhtngus0227@jj.ac.kr)

전주대학교 교원 보직 인사



인문콘텐츠대학장	김건우	의과학대학장	유인영	문화관광대학장	안세길
사회과학대학장	이호준	공과대학장	김은수	사범대학장	윤마병
경영대학장	김효진	문화융합대학장	강승묵		





코로나19 재유행 속 증가하는 확진자: 감염 예방과 대응 방안 점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는 만 명이 넘는다. 현재 환자 수는 작년 8월의 절반 수준이지만, 최근 2년간 여름철 유행 동향과 추세를 보았을 때 올해 8월 말에는 작년 최고 수준인 주당 35만 명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인과 같은 고위험군이 대거 밀집한 요양 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건수도 두 달 사이 2.5배 증가했으며, 이에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재유행하는 코로나19,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다. 이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코로나(원둘레에 방사형으로 빛이 퍼지는 형태) 모양이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명명되었다. 2019년에야 비로소 대중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것과는 달리,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한다.

코로나19, 현 실정과 당국의 대응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일어나지만, 코로나19는 지난 여름철, 심각한 수준으로 유행했으며 현재 추세로 보아 올해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에어컨 사용으로 환기가 현저히 줄고 휴가철 이동량이 늘면서 호흡기 감염이 전파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

병원 입원 환자 수 또한 올해 7월 148명, 8월 1,359명으로 지난달부터 급격히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단계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악화된 현재 상황으로 인해 정부도 지난 16일부터 7일 이내에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10월부터는 65세 이상 국민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예방접종도 실시할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5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치명률이 0.01%에 불과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일반 및 상시 감염병 수준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모두를 위해 대면 접촉을 피하고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등교해야 할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하여, 개강을 앞둔 재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또한 기침, 발열, 두통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로 권고하고 있다. 격리가 의무가 아닌 만큼 등교에 대한 방역 당국의 별도 지침은 없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살펴보면, 감염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 자가격리 및 병가 등을 제공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우리 학교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기에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공공기관 발급 유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등교하지 않은 기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 증상에는 뭐가 있을까?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코로나 무증상 감염의 빈도는 81%까지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13개의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17% 수준에 그친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평소 코로나 초기 증상 대해 인지하고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증상은 기침(50%), 38°C 이상 열(43%), 두통(34%), 호흡곤란(29%), 인후통(20%), 설사(19%), 오심·구토(12%) 순이다. 후각·미각 소실은 초기 일부 연구에서는 최대 70% 전후에서 발현된 것으로 보고했으나 연구마다 빈도차가 크게 나타났다. 알려진 것 이외에도 빈도 10% 미만의 피로, 식욕 감소, 객담,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정신학적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냉방병과 코로나19 구분 방법은?

장기간 폭염이 지속되면서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져 냉방병과 코로나19를 구분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쉽게 말해 코로나19 감염 사실도 모르고 감기로 치부한 채 일상생활을 지속하는 환자가 많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고열 동반 및 증상 지속 여부로 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질환의 공통 초기 증세는 콧물, 재채기 등 호흡기 증상, 소화불량, 피로감, 권태 등이다.

에어컨을 장시간 켜 후에 이런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근육통, 인후통, 호흡곤란, 기침, 37.5도 이상 발열 등을 동반한 증상이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거나 후각, 미각 상실 등 특이한 증상이 더해진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2024년 코로나19 예방수칙 포스터

감염 예방을 위한 실천안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지금, 마스크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마스크는 감염자의 분비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게 하고, 공기 중의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지 못하게 하므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된다. 마스크가 없는 경우 기침 분비물이 손이나 공기 중에 뿌려지지 않도록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는 것이 좋다. 동시에 해당 바이러스는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사람의 분비물은 직접 튀는 경우보다 어딘가에 묻어 있던 분비물을 손으로 만져서 몸으로 들어올 확률이 더 높다고 알려졌다. 손 또한 감염병을 옮기는 매개체이므로 철저한 손씻기가 중요하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고 인파가 몰린 곳에는 가지 않도록 의식하는 것도 감염을 예방하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중국 해외학교실무실습 기고문



송한울
(상담심리학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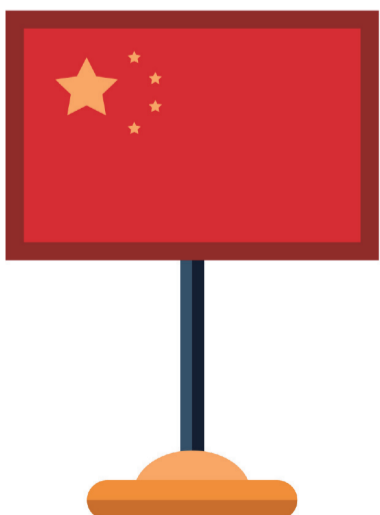
이번 실습은 미래 교사로서, 그리고 또 한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도 많은 성장을 하게 해주었다. 매시간 수업을 준비하면서 학습자의 동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수업해야 그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고민했다. 내가 구상한 수업을 좋아하며 잘 따라와 주면 기분이 좋았다. 학습자와 함께하는 수업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다. 또한 학생 대표로서 약간의 시행착오와 보이지 않는 갈등들을 마주했지만, 같이 그것을 해결해 가는 시간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도 또 한 번 성장한 것 같다.

그저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위해 간 계 아닌 정말 값진 경험을 하고 온 2주였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덕분에 한국에서 가지고 온 걱정들은 눈 녹듯 사라진 2주였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고, 무척이나 행복했고, 여유로웠고, 즐거웠다. 좋은 사람들을 만난 이 여름을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던 2주였달까. 나의 중국 친구가 내게 쓴 편지처럼 나 또한 이번 여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갈 나와 모두를 응원하며, 이 경험이 내게 아주 큰 발판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며, 중국 안녕!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 같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가르침으로써 배우는 그 시간이 후에 나의 교직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미래의 교사로서, 그리고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경험은 내게 아주 큰 자극이 되어줄 것 같았다.

사실 단순히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를 가르쳐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만날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대는 없었다. 공항에 가기도 전에 나의 2주가 담긴 캐리어는 너무나도 무거웠고,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반겨준 열기는 너무나도 뜨거웠다. 내가 이곳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겼다. 세 시간을 달려 허베이 대학교에 도착했다. 어디선가 중국 학생들이 나타나 나의 짐을 5층까지 옮겨주었다. 나는 할 줄 아는 중국어가 없었고, 그들 또한 할 줄 아는 한국어가 없었다. 하지만 그때 느꼈다. 눈빛으로도 충분히 말을 건넬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다음날 진행된 환영식에서 그들을 다시 마주했다. 왠지 우리는 아주 친한 친구가 될 것만 같았다.

2주 동안 오전엔 중국 친구들에게 중국어를 배우고, 오후엔 한국어를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는 각 팀끼리 시간을 보냈다. 중국의 음식도 맛보고, 관광지도 가보고, 기숙사에서 이야기도 나누었다. 단순히 한국어를 알려주는 것에 목적을 두었던 것과 달리, 중국의 다양한 문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아 번역기를 통해 대화하던 순간들이 더 많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속도도 빨라졌다.



전주대학교 채플 안내

우리 전주대학교에서는 '기독교 정신 구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재학생이 채플을 4회 이수해야 하는 교과과정이 있으며, 이를 위해 네 가지 채플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각 채플에서는 테마와 특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채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각 채플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성품채플, 소그룹채플

성품채플, 소그룹채플은 한 학기에 7개, 즉 1년에 총 14개의 성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건학이념을 구현한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 높은 인격과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고, 학생들에게 내면세계의 질서와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교육하여 신앙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채플

문화채플은 문화를 도구로, 매주 주제를 정하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그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제시하는 비신자 전용 채플이다. 슈퍼스타홀에서 진행되는 문화 채플은 담당 교수의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토크콘서트 형식의 결합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학생들 한명 한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에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과 복음이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고 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채플이다.

▶부흥채플

부흥채플은 신자 전용 채플로 학생들의 신앙생활에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대 사회 속 젊은 기독교 청년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흥채플은 전통적인 예배 방식을 넘어서, 찬양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 교류와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며 신앙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신앙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비록 한 학기이지만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같이 만들어 가는 채플이다.

선교지원실 오예찬(ssd5205@jj.ac.kr)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건강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어려움에 처한 교내 구성원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도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대학교회 206호)

약자를 찾아가는 은총



한병수 교수
(선교신학대학원장·선교봉사처장)

모든 인간은 연약하나 그중에서도 스스로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은 기독교 대학에 주어지는 고귀한 선물이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아 장기간 동면으로 들어간 선한 의식은 그러한 분들로 인해 봄이 찾아오고 새살이 돋아난다. 그들은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에 긍휼의 세포를 깊은 잠에서 일깨운다.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신의 정하심에 대한 의식도 자극한다. 이와는 달리 완벽한 사람을 만나면 비교 의식, 시기, 알미움이 마음의 아랫목을 다 차지한다. 그의 완벽을 취하여 악용하고 싶은 욕구도 반란을 일으킨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분들, 몸 불편한 분들, 저는 분들, 맹인들을 청하라는 말씀은 모두에게 최고의 교훈이다.

탐욕과 갑의 의식을 자극하는 부자와 유력자를 초청하는 것은 무익하다. 뒤를 봐주는 권력자가 있다는 사실이 타락에 동력을 제공하니 오히려 위험하다. 그러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경쟁과 질서의 고약한 의식을 잠재우고 배려와 포용의 우아한 의식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향구적인 선물이다. 연약한 분들의 다가옴과 그런 분들에게 다가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첩경이다.

학생이든 직원이든 교수든, 긴 방학 동안 잠들었던 모든 세포를 깨워 각자에게 맡겨진 약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긴급한 필요를 채워주는 새 학기, 이로써 하늘의 은총을 최대한으로 누리는 새 학기가 되기를 소원한다.

기도문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주대학교 안에 가득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60년이란 시간을 지키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2학기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 2차년도 연차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전국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허락하시고, 그에 더해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서도 S등급 평가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문콘텐츠대학의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HUSS)', 사범대학이 선정된 교육부의 '교·사대 교원양성과정 혁신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나라를 선도할 인재 양성의 틀이 마련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60년 전 이곳에 전주대학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계로 100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역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가 하나님의 대학으로서 학생과 지역을 더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방 소멸이라는 큰 과제가 우리 앞에 다가왔지만,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우리의 노력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만들어 가는 전주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이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힘과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먼저 된 자로, 가진 지식을 나누고 연구하게 하시고 교수들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장순 교수
(인문콘텐츠대학 신학과경배찬양학과)

기자칼럼

교제 폭력의 확산과 미흡한 처벌: 예방과 보호를 위한 긴급 과제

전지은 기자
(uptoillie20@jj.ac.kr)

지난 8월 데이트 폭력 출소 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스토킹한 2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에는 데이트 비용을 빌미로 협박 및 스토킹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교제 폭력 및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연령대도 20대에서 60대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탈 없이 헤어진다는 뜻의 '안전 이별'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한지 오래다.

우리 일상에 녹아있는 교제 폭력, 그 정의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교제 폭력(이하 교제 폭력)은 친밀함을 배경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강압적 통제 관계다. 심리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학대 및 파트너의 기본적인 권리, 자유, 자원을 박탈함으로써 상대방의 일상을 지배하기 위해 고안된 다각적인 전략으로 정의되고 있다. 연인 사이에 발생한 현상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순수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제 폭력 증가 속 구속률 감소와 약한 처벌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교제 폭력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21년에 10,538명, 2022년 12,828명, 2023년 13,939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제 폭력 특례법」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이후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는 56,079명으로 구속된 비율은 2.21%인데 올해 1~4월 김미애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87%로 구속률 수치가 감소했다.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가해자는 해마다 느는 추세지만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교제 폭력은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 접근금지·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 등을 내리기 어렵다.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건은 일반 폭행 및 협박죄로 간

주되어 처벌이 약해진다.

그러나, 교제 폭력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 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제 폭력 예방을 위한 해결책, 국가적·개인적 방안

해당 범죄는 스토킹이나 교제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는 교제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이다. 통상적으로 살인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교제 폭력의 이름을 달고 노출되는 까닭에 언어적·정서적 폭력의 경우, 교제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고 시에는 상처 부위의 사진이나 진단서, 문자나 통화 내용, CCTV와 블랙박스 등의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 지인이나 가족에게 폭력 피해를 호소한 경우, 시간과 장소 등의 연락 기록, 혹은 폭력 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한 메모 등도 중요한 기록 또한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

교제 폭력은 상대를 독립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잘못된 가치관에서 출발하는 만큼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캠페인을 벌이는 등 예방에 중점을 두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제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및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형량을 대폭 증가시키는 가중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024학년도 2학기
전주대신문 발간 일정**

941호

9월 4일 (수)
오전 9시

942호

10월 2일 (수)
오전 9시

943호

11월 6일 (수)
오전 9시

944호

12월 4일 (수)
오전 9시

교수칼럼

방치형 게임의 인기와 MZ 세대



윤형섭 교수
(문화융합대학 게임콘텐츠학과)

최근 방치형 게임이 인기가 높다. 그런데 게임의 특징으로 보면 방치형 게임은 게임이라고 하기에 모호한 점이 있다. 게임의 특징은 명확한 목표, 도전적인 과제, 상호작용 그리고 스토리와 보상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치형 게임은 게임의 다른 특징은 갖추고 있지만, 상호작용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업무를 하거나 공부하면서 그저 가끔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게임 진행이 가능할 정도로 상호작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방치형 게임은 최근에 왜 인기가 높아진 것일까? 이는 MZ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개발사의 이익 측면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MZ 세대 플레이어 입장에서 보면 방치형 게임은 접근성이 좋아서 쉽게 모바일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으며, MMORPG와 같은 반복적 노력이 적은 게임이다. 상호작용을 하는 재미는 부족하지만,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스포츠를 직접 플레이하지 않고도 충분히 다른 재미를 느끼는 e스포츠 세대에겐 보는 재미도 중요한 것이다. 또한 게임을 하고 싶는데, 할 시간이 없는 그들에게 딱 들어맞는 게임 장르이기도 하다. 한편, 개발사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유인이 쉬우며 부분 유료화 모델을 적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몇 가지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방치형 게임의 인기는 소비자 입장이나 개발사 입장에서 양측의 니즈를 해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시대에 따라 게임의 유형이 변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욕망 해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다. MZ세대의 부모 세대는 관광처럼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했다. 그러나 그다음 세대인 MZ세대는 소유하고 싶은 것을 갖게 될 때 행복하다고 하고, 각자 좋아하는 취미나 오락 활동을 하면서 행복하다고 한다. 그나마도 바빠서 활동할 시간이 부족한 MZ세대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욕망을 해소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SNS,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서비스, 유튜브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뉴미디어를 통해 시간을 소비 하면서 즐겁다고 한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 행복을 찾을 수 없으니, 재미를 통해 유사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

칙센트미하이의 몰입(Flow) 이론은 사람은 몰입하면 할수록 행복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 한편, 매슬로우는 진정한 욕구의 해소는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두 노학자의 주장이 맞다면 MZ세대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몰입해 보는 것이다. 방치형 게임 플레이가 행복 찾기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직접 실행에 옮기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것이 꼭 실현된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그 과정에서 MZ세대 여러분들은 재미와 성취감 그리고 행복을 맞출 수 있을 것이며,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MZ세대여!,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스스로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재미(being)”와 되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하는 재미(doing)”에 눈여겨보기를 바란다.

기자칼럼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적절한 교육방식인가?



오유진 기자
(yujin03120@jj.ac.kr)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 전주의 한 중학교에 방문했을 때 신기한 물건이 있었다. 그 물건은 스마트기기 충전 보관함이었다. 학교에서 스마트기기를 학습 도구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보니 더욱 신기하게 다가오면서도 과연 모든 학생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계획을 밝혔다. AI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개인별 수준과 속도에 맞춘 학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수학, 영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 후 2028년 모든 교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학교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이다. 하지만 지난 5월 스마트기기 사용 중독을 우려해 도입을 미뤄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오며 논의가 확대되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교과서 내용을 단순히 PDF로 바꾼 것이 아니다. 학습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핵심이다. 학생이 수업을 듣는 동안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이해도를 교사와 학부모에게 공유한다. 이는 학습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학생수준에 맞는 교과서가 구성되어 맞춤형 지도도 할 수 있다. 학생 수준을 고려한 심화, 보충 문제와 추가적으로 시청각 자료를 제공해 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 즉, 학생 개개인에 맞는 수준별 학습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무거운 교과서를 들고 다닐 일도 없으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교과서 물려주기도 가능해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이 디지털 화면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 공부 목적으로 태블릿 PC를 구매한 사람 중 종이 질감 필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태블릿 PC가 아직 종이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심지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다 다시 종이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디지털 교과서가 집중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일본 쇼와 대학 연구팀에서는 대학생에게 같은 책을 전자책과 종이책으로 읽게 했다. 그 결과 전자책을 읽었을 때 심호흡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뇌의 전전두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종이책을 읽을 때보다 뇌에서 받는 부담이 커져 독해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시청각 자료에 의존한다면 문해력과 사고력이 떨어진다. 예전에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책을 주로 사용했다면, 요즘은 유튜브 검색부터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글로 된 설명서보다 보고 듣는 자료에 의존할 경우, 문해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또 글자보다 시청각 자료는 뇌에 더 큰 자극을 준다. 이는 디지털 과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글을 통해 사고하고 학습하는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 수준에 맞춘 개별형 학습 방식으로 인해 학습 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학습 의지가 높은 학생이라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같은 교실에서 다른 수준의 문제를 푸는 방식은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소외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에서도 역시 교육용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교육용 노트북을 지급하는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 디지털 교육을 시도했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는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활용했지만, 학생들의 집중력과 문해력을 해친다는 이유로 다시 종이 교과서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듯 아직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견해는 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제도와 방식에는 언제나 과도기가 존재하기에 무분별한 반대는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손의 소근육 발달을 위해 쉽게 쓸 수 있는 사프보다는 연필 사용을 강조했던 것처럼 사고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직 종이 교과서가 남아있어야 한다.

With Jeonju University and Jeonbuk State Self-Governing Province, the first mentees of the 『How-Wow Future Camp』 were recruited to foster the future generation of the region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announced that it will appoint representatives of various companies and institutions in Jeonbuk and Jeonbuk regional universities as mentors along with Jeonbuk State Governor (Kim Kwan-young) and run “How-Wow Future Camp” to foster future talent.

“How Wow Future Camp” is a mentoring program aimed at strengthening communication with community leaders to foster young generations in Jeonbuk, and mentors are corporate representatives, leading CEOs, professors, and representatives of research institutes, public institutions, and economic organizations, and mentees consist of young people (university students and job seekers) in the province.

July 29 (Mon) to August 9 (Fri), was the application period for youth mentee participation, and the mentoring program will begin in earnest starting with the launch ceremony at 14:00 on August 27.

In particular, 44 mentors,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from the new industries, high-tech, energy, and mobility, bio, agricultural life, ICT culture, and start-up, will participate, and programs such as mentoring between mentors and mentees, visits to companies, institu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will be held, and performance reports will be prepared.

Lee Hae-won, Special Vice-Chancellor (Industry), who oversees the project, said, “I think the How-Wow Future Camp is a great opportunity for university students in the province to help them pass on the various experiences and design dreams of competent mentors in each field. Starting with this first period, I look forward to seeing more participants recruited for the second, third periods, etc., with many young people working as mentees and growing into mentors who can play a major role in the community.”

article Regional Innovation Group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Jeonju University, Successful Completion of Seminar for 2024 Council of Universities Job Plus Centers in Jeolla-Jeju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University Job Plus Center announced that it successfully held the “2024 Jeolla Jeju University Job Plus Center Council Seminar” at the Shangri-Beach Tourist Hotel in Mokpo for two days from the 13th to the 14th of August with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nd the universities operating the Jeolla Jeju University Job Plus Center.

The seminar was organiz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nd university employment support workers in the Jeolla-do region to share difficulties in the field and find effective countermeasures such as customized employment support strategies for each university in accordance with the latest youth employment trends, expanding youth policies to lower youth employment barrier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jobs and employment capability enhancement programs.

About 60 people attended, including officials from 15 universities operating the Jeolla Jeju University Job Plus Centers, job consultants, and officials from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followed by consulting with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on each university’s career employment support program and divisional discussions between participating universit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one-stop youth employment services.

(Job Plus Center Project Management Institutions in the Jeolla Jeju area: Gwangju National University, Gwangju Women’s University, Gunsan National University, Mokpo National University, Dongshin University, Suncheon University, Suncheon Jeil College, Wooseok University, Wonkwang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eonju University, Jeonju Kijeon College, Jeju National University, Chosun University, Chosun College of Science and Technology, Hanyeong University, Honam University, etc.)

“We will further strengthen solidarity and collaboration with universities operating the University Job Plus Centers to provide flexible one-stop employment services that take into account individual circumstances and demands so that our young people do not stop trying amid the increasingly difficult employment situation,” said Song Ho-seon, head of the university job plus center in Jeolla-do.

article Student employment office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Jeonju University to establish the first electronic braille service on a university website in Korea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announced on the 5th(of August) that it will provide ‘electronic braille service’ by introducing electronic braille solutions on their website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The service was reorganiz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screening and access to entrance examination information for students from information vulnerable groups, including the visually impaired, by providing the ‘Electronic Braille Service’.

The electronic braille service is a technology that helps visually impaired students more easily access and understand selection information on the website. Through this, students with disabilities can obtain entrance examination information on an equal basis with non-disabled students, which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equality in education and contribute greatly to bridging the information gap.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braille solution is part of efforts to ensure that all students can access entrance exam information fairly, said Lee Keun-ho, head of Jeonju University’s admissions department. “We will continue to improve the admissions process to make it easier for all test-takers, includ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 understand the admission process through 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On the other hand, Jeonju University is operating a selection proces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is year, the Department of Free Majors and the Department of Companion Animal Industry will be newly established to select students from the 2025 school year. For more information, check the Jeonju University Admissions Office website (<https://iphak.jj.ac.kr>) or contact us by wire (063-220-2700~1)

article Admissions Office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Jeonju University Awards Degrees for 2023 Graduates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announced today that the 14th is the date of the graduation ceremony for 2023 degree recipients.

Jeonju University said it will not hold a degree ceremony in for 2023 graduates, but instead of awarding individual degrees and certificates, it will operate a photo zone for each college and university for a week until 8.20 (Tue).

A total of 594 graduated, including 396 bachelor’s degree, 151 master’s degree, and 48 doctorates. 78 graduates will receive special awards, including environmental life sciences student Choi Kang-min. Since its opening in 1964, Jeonju University has produced a total of 92,453 graduates, including 83,925 receiving bachelor’s degrees, 7,410 master’s degrees, and 1,118 doctor’s degrees.

We applaud graduates who have shown enthusiasm and persistence in their studies even in the face of the three-year COVID-19 pandemic period, said So Hyun-sung, head of the school affairs department at Jeonju University. “As a graduate of Jeonju University with values and capabilities based on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spirituality, I hope the precious values learned in college will shine every moment.”

Jeonju University is leading the development of creative practical talents as a university that leads in student success and regional innovation growth under the founding ideology of the realization of the Christian spirit. In the recent evaluation of the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it received the highest S grade for two consecutive years (2023-2024) and received 11.6 billion won in 2024 project funds, proving its excellence in educational innovation in various national project selections and evaluations.

article Faculty Office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2024年下半年EPIK预备培训在全州大学举行

全州大学授予2023学年度后期学位



全州大学（校长朴珍培）宣布，8月14日为2023学年度后期学位授予日。

全州大学表示，2023学年度后期学位授予仪式没有举行集体活动，没有为毕业生分别颁发学位证书和奖状，取而代之的是至8月20日（星期二）为止的一周内，租借学位服并在各学院设立拍照区，为毕业生提供拍照服务。

— 450余名外籍英语助教，在最具韩国特色的城市全州首次见面 —
由国立国际教育院（院长韩相信-音译）针对450余名新任外籍英语助教主办的“2024年下半年EPIK（韩国英语项目）预备培训”于8月19日至26日在全州大学（校长朴珍培）进行。

2024年EPIK预备培训于20日（星期二）以曾感动英国的全州大学跆拳道表演团的祝贺演出开场，至26日（星期一）结束。为了提高对韩国生活的整体了解、教师角色的认知及自豪感，培训包含了韩国英语教育课程的理解及教学法的提高、韩国文化体验等内容。

外籍英语助教们在培训期间参观了全州韩屋村、品尝了拌饭，并通过跆拳道课程，感受了韩国文化的魅力、了解了韩国的风采。

全州大学国际交流院沈永国院长在开学典礼上鼓励道：“希望大家在全州这座传统与现代和谐共存的城市中，能遇到美丽的文化和好的人，并通过学到的知识和经验，向学生们展示更广阔的世界。”

此次2023学年度后期毕业生共计594人，包括学士396人，硕士151人，博士48人。其中，环境生命科学专业的崔康敏（音译）等78名毕业生获得了最优等奖。自1964年建校以来，全州大学已培养出学士83,925人，硕士7,410人，博士1,118人，共计92,453名人才。

全州大学教务处长苏铉盛为毕业生的新起点送上祝福时表示：“在为期三年的新冠疫情期间，仍然展现出对学业的热情，并坚持下来的毕业生们值得我们鼓掌祝贺。”他还表示：“作为全州大学培养的具备知性、人性和灵性的毕业生，真心希望你们能够在今后的每个瞬间让在大学里学到的宝贵价值闪耀光芒。”

此外，全州大学秉承基督教精神的建校理念，致力于引领学生的成功和地区的创新发展，积极培养创新型实用人才。近年来，在大学创新支持项目评估中，继2023年之后连续两年获得最高等级“S等级”，因此在2024年将获得116亿韩元的项目资金支持，这也再次证明了全州大学在各类国家项目评选和评估中的教育创新卓越性。

全州大学荣获大学创新支持项目全国最高等级

全州大学（校长朴珍培）于8月8日宣布，在教育部大学创新支持项目I型（一般财政支持）第二年度年度评估结果中，获得了全国最高等级“S等级”（教育创新战略‘S’）。这是全州大继2023年后，连续两年获得“S等级”，它证明了全州大学在教育创新方面的卓越表现。由此，全州大学将在2024年获得总计116亿4500万韩元的项目资金支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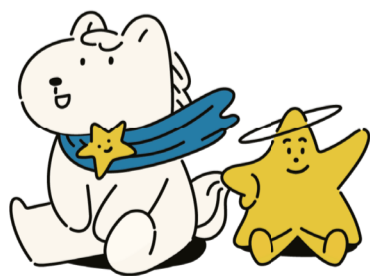
此次评估是针对大学创新支持项目I型（一般财政支持）支持的117所大学进行的第二年度（2024年）评估。评估内容包括大学的教育创新战略、核心教育成果（维持满员率）及自主成果管理等三个领域。特别值得一提的是，全州大因“响应学生和地区需求进行的教务结构改革”、“通过建立支持学生成功的体系，实质性保障学生的成功选择权并运营相应的教务制度体系”、“为了支持学生的前途探索和规划，建立了基于学生真实情况的学生综合评估体系，并以此帮助学生适应大学生活并开发自身能力”、“为提高学生素质，定制基础素质教育，开发和改进课程、开发教育内容、建立学习支持体系等，分阶段实施了多种详细的教育计划”等教育创新成果，获得了最高的S等级评价。

全州大校长朴珍培表示：“以‘引领学生成功与地区创新发展的大学’为目标，响应学生和地区需求，基于学生个性支持他们探索职业路径，构建以学生成功为核心的支持体系。”他还表示：“为了让学生、大学和地区共同成功与发展，将继续确立以需求者为中心的制度，并不断推进教育质量的提升。”

另外，全州大在2024年6月的教育部地方大学振兴项目2024年第一年度年度评估中，曾获得全国最高等级“S等级”（湖南地区唯一）。

독자투고 원고모집

8면 오피니언면에 실릴 독자투고 원고를 받습니다!



자격: 전주대학교 학부 재학생

주제: 개강, 가을과 관련한 사연 및 홍보 (행사, 생일 등)

분량: -공백 포함 500자 내외(A4용지 반 장)
-관련 사진 2장 첨부 필수

기간: 9월 18일(수), 18시까지(발간일: 10월 2일(수))

접수: 이메일(news@jj.ac.kr)

문의: 063-220-2442(미디어센터 대학신문사)

전주대 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신입기자 지원자격 및 활동내용

취재기자

교내뉴스 및 생활, 문화
기사 취재 및 작성 등

편집기자

일러스트 제작, 사진 보정,
종합본 PDF 디자인 등

활동혜택

1. 정기자 선발 시 매 월 교내 미디어 장학금 지급
2. 신문 발간시 신문 기사 작성에 대한 원고료 지급
3. 취재 시 활동비 지급
4. 학기별 CP포인트 지급
5. 각종 미디어 프로그램 강의권 제공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등)

지원서는 전주대학교 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은 해당 게시물에 작성된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기간 ~2024. 9. 13.(금)

전주대학교 대학신문사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320호

문의 | 063-220-2442 홈페이지 | www.jj.ac.kr/jjnews